

예외 공간으로서 접경지역의 위치성 전환

김부현* · 이승철**

Switching Positionality of Border Region as Exceptional Space

Boo-Heon Kim* · Sung-Cheol Lee**

요약 : 본 논문은 주체와 대상 간의 상대적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 위치성 개념이 예외 공간으로서의 접경지역의 공간성 파악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접경지역은 거리상으로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국가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지만 국경을 둘러싼 지정학적, 지경학적 변화에 따라 갑작스러운 단절과 개방이 나타나는 다중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위치성의 전환이란 측면에서 파악하기에 적절하다. 본 논문이 접경지역을 위치성 전환의 관점에서 재개념화함으로써 기대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의 변화 가능성을 로컬에 기반을 둔 내적 조건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맥락과 정세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2) 접경지역의 발전 궤적을 다양한 힘들 간의 아쌍블라주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3) 지경학과 지정학 간의 역동적 관계를 통해서 접경지역의 위치성 전환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위치성은 기존 공간과 시간, 공간성에 대한 논의를 관계론적/변증법적, 사회-공간론적, 권력-위상학적 측면에서 새롭게 확장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위치성 전환을 통해서 북중 접경지역의 예외적 성격을 파악하였다. 북중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 불안이라는 '예외 상태'가 상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지경학적 논리가 작동하면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예외적인 성격을 창출한 것으로 이해된다.

주요어 : 공간성, 관계론적/변증법적 존재론, 북중 접경지역, 예외 공간, 위치성 전환, 위상학

Abstract :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spatiality of North Korea and China border regions through investigating the excep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s with the concept of positionality, which allows us to realize the relative position between subject and object. Border regions could be identified appropriately by considering the concept of switching positionality, as it is a kind of multiple space in which its sudden closure and opening should be configured in accordance with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changes centering around border line. The main arguments of this research concerned with border regions with the concept of switching positionality are fallen into three. Firstly, changes in border regions should be analyzed by investigating more broader contexts and conjunctural perspectives, and even an internal condition stemmed from locality. Secondly, trajectories of border regions could be analyzed by the assemblages of various powers. Finally, the positionality of economic actors should be exam-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3926463).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과정, 월계고등학교 교사 (Doctoral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Geography, Dongguk University-Seoul campus; Teacher, Wolgye High School, owlman78@hanmail.net)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ongguk University-Seoul campus, leesc@dongguk.edu)

ined by identifying dynamic relations between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positionality has led to a number of insights into discussions on time-space, and spatiality in relational-dialectical, socio-spatial, and power-topological perspectives. Based upon this concept of positionality, the research has identified exceptional characteristics in North Korea and China border regions. It argues that the exceptionality of the region has stemmed from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instability of geopolitical security and various geoeconomic benefits.

Key Words : spatiality, relational/dialectical ontology, North Korea-China border region, exceptional space, positionality switch, topology

1. 서론

접경지역(border region)은 정치적인 경계선인 국경(political border line)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하위 행정단위로 인접한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 간의 정치·외교적 상황에 따라서 접경지역 상호작용의 차이가 존재하는 공간이다(접경지역 상호작용에 따른 유형 구분은 다음을 참조할 것, Martinez, 1994). 정치지리학자 Paasi(2012: 2303)에 따르면 접경지역이나 국경에 대한 사회과학의 관심은 19세기 근대적인 국민국가 형성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근대지리학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인 Friedrich Ratzel은 국경이 정치적 균형(political balance)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고, 유명한 사회학자인 Georg Simmel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국경이 갖는 의미를 탐구하면서 국경(경계)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우리 자신이 국경(경계)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접경지역이나 국경을 둘러싼 새로운 연구 주제들은 199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Newman and Paasi, 1998: 186; Perkmann and Sum, 2002: 3-21). 1990년대는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담론으로 대표되는 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때였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

후 1990년대 초반부터 중동부유럽의 옛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념의 벽 대신 국경을 둘러싼 새로운 장벽이 갖는 의미가 중요해지면서 접경지역 및 국경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Paasi, 2012: 2303; 김부현·이승철, 2015). 특히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안보와 생명정치학에 초점을 둔 국경 연구가 크게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Paasi, 2012: 2303; 접경지역을 사례로 한 대표적인 생명정치학 연구로는 다음을 볼 것, Arnold and Pickles, 2011, Topak, 2014). 그밖에도 최근 사회과학 내에서는 ‘경계 사유하기(border thinking)’, ‘사이성(in-betweenness)’, ‘문화 횡단(transculturation)’, ‘혼종성(hybridization)’, ‘경계지대(borderland)’, ‘교차성(intersectionality)’, ‘변위(transposition)’, ‘제3공간(the third space)’ 등과 같은 개념들(예를 들어 다음을 볼 것, 김미경, 2015; 정현주, 2015; 조만성 역, 2011; 정인모·배정희 역, 2010)을 통해서 접경지역 및 국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모색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명확한 경계 짓기와 영역화를 비판하면서 탈영역화, 탈경계화를 기획하는 차원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접경지역 사이에 놓은 국경선은 더 이상 분리나 차단의 장벽이 아니다(Agnew, 2008). 오늘날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경을 사이에 둔 접경지역은 교류와 협력, 접촉의 장으로 변화

하고 있으며(이옥희, 2011: 31), 접경지역은 수없이 많은 사회적 실천과 담론의 영향을 받아(Allen, 2011: 287),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되고 또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되면서 혼종성과 다공성의 특성을 갖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접경지역을 하나의 '예외 공간(exceptional space)'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우선 본 논문이 주목하는 예외 공간은 법철학적인 차원에서 '예외 상태(state of exception)'를 제시한 Agamben의 논의와(박진우 역, 2008; 김항 역, 2009) 이를 영역적인 차원에서 확장한 인류학자 Ong(2006)의 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최근 지리학에서도 Agamben이나 Ong이 제시한 예외성의 철학을 적용한 연구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우선 그 중 해외 저널에 소개된 관련 연구들을 소개해보면, Agamben의 예외 상태를 공간적/지리적 차원에서 해석한 연구(Minca, 2007)와 이론적 제국주의와 유럽중심의 정치지리학을 넘어서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 역사에 기반을 둔 Agamben의 틀을 비서구지역 포스트식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 적용시켜봄으로써 Agamben이 제시했던 기존 개념들을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킨 연구(S.-O. Lee·Jan·Wainwright, 2014), 레바논의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를 예외 공간으로 간주하고 난민 캠프의 정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Ramadan, 2013),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와 단기 노동비자로 입국해서 하숙 보모로 일하는 이주여성의 사례를 통해서 버림받은 여성들(abandoned women)과 예외 공간을 분석한 연구(Pratt, 2005), 탈레반 시기 이후(post-Taliban)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사례로 젠더화된 신체가 어떻게 자본축적과 가치 교환의 장으로 변모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별거벗은 삶'의 젠더화된 다중성(gendered multiplicities)에 주목한 연구(Fluri, 2012),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도시 정책을 사례로 영토 탈환식 장악과 개발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 정책

이 어떻게 예외 지대(zone of exception)를 창출하는지를 분석한 연구(Schinkel and Berg, 2011) 등을 들 수 있다.

해외 지리학계의 사정과는 달리 아직까지 국내 지리학에서는 예외성의 철학을 적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지금까지 국내 지리학에서 예외 상태나 예외 공간 개념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연구는 2014년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연구된 (경제)특구 관련 논의가 유일하다(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볼 것. 이승욱·박배균, 2016; 김은혜·박배균, 2016; 조성찬, 2016; 박철현, 2016; 이승욱, 2016a; 박배균, 2017). 이들 연구들은 정치지리학의 입장에서 Aihwa Ong의 예외 공간 논의를 적용하여 동아시아의 여러 특구를 발전주의적 특구와 신자유주의적 특구, 체제전환형 특구로 구분하고 특구별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 연구들은 특구를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이 발현되는 공간으로 해석한 Ong(2006)의 논리를 문제시하면서 특구를 보다 넓은 정치-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동아시아의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개별 특구가 갖는 독특한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동아시아 특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룬 다음 논의를 참조할 것. 박배균, 2017).

본 논문은 예외 공간에 대한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예외 상태나 예외 공간이 어떤 점에서 예외적인가 하는 점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은 질문은 오늘날 예외 상태가 상례화되고 있다는 Agamben의 비판과 통한다(홍철기, 2006: 203-204). 왜냐하면 특구와 같은 예외 공간이 오늘날 포스트 개발주의 시대 속에서 널리 형성되고 있고 그와 같은 예외 공간이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의 산물이라면 그것은 예외 상태에 대한 Agamben의 비판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예외가 아닌 규칙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Ong(2006: 91-92)도 예외 공간의 차별적인 지배 메커니즘(governing mechanisms)이 차별적인 특구들의 은하계(galaxy of differentiated zones)를 형성하고 이들은 국가 권력과 글로벌 자본 속으로 불균등하게 편입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예외 공간이 다양한 발전 논리 속에서 등장했음을 인정하고 예외 공간의 예외적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접경지역은 어떤 점에서 예외 공간이며, Ong이 제시한 동아시아의(경제)특구와는 어떤 점에서 차별성·특수성을 갖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분석 도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은 예외적 성격을 갖는 접경지역의 공간성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 틀로 ‘위치성(positionality)’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래 위치성은 어떤 존재든 특정 시·공간 속의 구체적인 맥락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하는 개념이다(조성훈 역, 2011: 12 역자 주). 사회과학 내에서 주체와 대상 간의 상대적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위치성 개념은 ‘상황에 놓인 지식(situated knowledge)’, ‘재현의 위기(the crisis of representation)’, ‘성찰성(reflexivity)’, ‘맥락 의존적(context-dependent)’과 같은 개념들과 연결되면서 발전해왔다(정현주, 2015: 299; Rose, 1997). 이와 같은 위치성 개념을 Sheppard(2002)는 공간과 장소의 위치성으로 발전시켰고, Kortelainen and Rannikko(2015)는 핀란드-러시아 접경지역의 입업 커뮤니티를 연구하면서 이를 ‘위치성 전환(positionality switch)’으로 재개념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접경지역의 예외 공간적 특성을 위치성의 전환이란 개념을 통해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 수준에서 검토하는데 있다. 4장에서 북중 접경지역을 사례로 위치성 전환이 다루어질 예정이지만, 전체적인 논의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진행된다. 특히 ‘접경지역’, ‘예외 공간’, ‘위치성’의 세 가지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는지에 초

점을 두고 검토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2장에서는 Agamben과 Ong의 논의를 중심으로 예외 상태와 예외 공간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접경지역을 둘러싼 생명정치학적 연구에 초점을 두고 접경지역이 갖는 예외적 성격을 논의할 것이다. 3장에서는 연구자의 위치성에서부터 Sheppard(2002)가 제안한 장소 및 지역의 위치성, Kortelainen and Rannikko(2015)가 제안한 위치성 전환에 이르기까지 위치성의 확장 과정을 검토하고 위치성이 공간성 연구에 주는 함의를 검토함으로써 위치성 연구가 공간과 시간이 긴밀하게 통합된 사회-공간론적 존재론을 추동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4장에서는 위치성 전환 관점에서 접경지역의 변화를 연구한 Kortelainen and Rannikko의 연구와 지경학-지정학의 관계를 통해서 접경지역의 변화를 연구한 Pickles와 Smith 등(2016)의 연구를 소개한 뒤, ‘예외 공간으로서 접경지역의 위치성 전환’이 실제 사례지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북중 접경지역을 사례로 위치성의 전환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예외 상태, 예외 공간과 접경지역의 예외적 성격

1) 예외 상태와 예외 공간

본 논문은 접경지역을 예외적 성격을 갖는 공간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예외성의 철학은 법 철학자 Giorgio Agamben이 제시한 ‘예외 상태(state of exception)’와 ‘호모 사케르(homo sacer)’, 그리고 인류학자 Aihwa Ong이 제시한 ‘예외 공간(space of exception)’, ‘예외로서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as exception)’, ‘신자유주의에

대한 예외(exception to neoliberalism)’ 등에 토대를 두고 있다.

Agamben이 제시한 ‘예외 상태’는 법철학적인 측면에서의 논의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생명정치학, 시민권 또는 주권, 윤리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학문영역에서 환영받는 개념으로 성장했다. 우선 Agamben이 설명하는 ‘예외’는 법의 일반성 속으로 포섭되지 않는 현실의 구체적인 잔여물을 의미한다. 법 자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지만, 법치의 대상이 되는 현실의 모습은 각각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법이 현실을 온전하게 포섭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Agamben은 바로 법의 ‘예외’를 분석함으로써 권력의 본질을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태환, 2004: 1283-1284).

Agamben은 ‘예외 상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호모 사케르’란 개념을 제시했다.¹⁾ 그렇다면 호모 사케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서 Agamben은 독일의 정치이론가 Carl Schmitt의 ‘주권(sov-ereignty)’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권자가 특정 상황을 법질서 바깥으로 밀어냄으로써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것처럼, 주권을 가진 존재가 주권을 박탈당해 경계 바깥으로 밀려나게 됨으로써 호모 사케르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Agamben은 여기에서 말하는 비상사태와 예외 상태, 그리고 예외적 존재인 호모 사케르가 단순히 질서 이전의 자연 상태나 그러한 상태로 내몰린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외는 반드시 정상 상태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정상 상태인 법질서가 예외 상태보다 선행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예외 상태의 특수한 법질서의 지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질서로부터 배제되어 있지만 기존 법질서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모순적인 위치에 놓이게 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같은 맥락에서 Agamben은 Schmitt가 말한 주권자 역시 법의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위치하는 일종의 ‘한계 개

념(form of a threshold)’으로 해석한다(김항 역, 2009; 김태환, 2004: 1288-1291). 예를 들어, 주권자는 비상사태에서 (비상계엄령의 선포와 같은) 기존 법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상 상태에서 효력을 갖는 법질서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법이 중단된 예외 상태에서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존 법질서의 외부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다(홍철기, 2006: 197-198).²⁾

본 논문이 Agamben의 예외 상태 논의로부터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외란 예외 이전의 정상 상태와의 관계를 통해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성’ 차원의 독해가 필요하다. 예외란 단지 특별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예외의 반대되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이다. 둘째, 예외와 예외 아님, 배제와 포섭, 비정상과 정상 간의 구분과 경계가 모호하며 따라서 이 둘을 경계 짓는 일은 권력구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예외의 반대되는 ‘정상성’이란 지배적인 권력구조,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권력의 입장에서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인류학자 Aihwa Ong(2006)은 『예외로서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as Exception)』란 책에서 ‘예외 공간(space of exception)’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예외 공간이란 개념을 통해서 Ong이 특별히 설명하려고 했던 대상은 동아시아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 SEZs)이다. 경제특구는 국가 영토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질서와는 차별화되는 예외적인 규칙, 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구획화된 공간이기 때문에 예외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박배균, 2017: 290; 이승욱, 2016a: 138-139; Arnold, 2012). Ong의 예외 공간은 비상사태의 선포인 Schmitt의 예외 상태와 호모 사케르를 결정하는 Agamben의 예외 상태 개념을 토대에 둔다. 다만 Ong은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이

해하여 배제와 포섭이 함께 작동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Ong(2006: 12-13)은 예외 공간이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최적화를 위해서 통치와 자기 통치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면서 신자유주의를 전제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녀는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통치기술(technology of governing)이나 통치성(governmentality)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시장 가치라는 근본 원리를 합리화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 시민권 등의 개념을 변화시키는 통치 기술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Ong(2006: 3-10)은 예외로서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as exception)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예외(exception to neoliberalism)를 구분한다. 예외로서의 신자유주의는 시장 우선성과 같은 신자유주의의 기본 원리를 특정 공간의 주민과 행정 관리에 도입함으로써 변화를 유도하는 매우 능동적이고 개입주의적인 측면의 통치 기술을 의미하는 반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예외는 신자유주의의 계산 및 평가에서 특정 주민들과 장소를 배제하는 통치 기술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예외로서의 신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의 '포섭' 메커니즘에 해당되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예외는 신자유주의의 '배제' 메커니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Ong(2006: 4)은 바로 이 신자유주의의 포섭과 배제 메커니즘이 서로 중첩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신자유주의가 자신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섭된 존재가 배제된 존재에 일정 부분 의존하는 상황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Ong(2006: 75-118)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구획된, 경계 지워졌던 주권이 점차 다채로워지고 등급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권의 변화를 포스트 발전주의(post-developmentalism) 공간 전략과 연관 지어 설명한다(포스트 발전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Sidaway, 2007). 포스트 발전주의는 국가의 영역성을 하나의 동질적인 공간으로 간주했던 발전주의와 달리 국가의 영역성을 분산적이고 차별화된 것으로 이해한다(박배균, 2017: 291). 따라서 포스트 발전주의는 '등급화된 주권(graduated sovereignty)'을 만들어낸다. 등급화된 주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첫 번째 방식은 신자유주의 계산 및 평가 원리에 따라 공간 내 시민권을 차별화한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인구집단을 차별적으로 통치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전략은 인종이나 민족, 젠더, 계급 등에 따라 이미 형성된 사회적 구분을 더욱 강화시킨다(Park B.-G., 2005: 852; Ong, 2006: 78-79). 두 번째 방식은 한 국가 내에서 경제특구와 같이 영역적으로 차별화된, 예외적인 지대를 만드는 '구획화(zoning)' 전략이다. 이는 국가 영토를 구획함으로써 글로벌 자본의 순환과 효율적으로 접합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Ong, 2006: 102-103). Ong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가의 권력과 제도가 보다 분산적이고 차별적으로 총화되었다고 설명한다(박배균, 2017: 291).

국가의 영역성과 주권의 본질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역동적이고 다층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Ong의 예외 공간 논의는 주권의 본질을 영역성과 관련 지어 보다 다채롭고 다층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서 Ong의 예외 공간 논의는 Agamben이나 Schmitt의 논의와 달리 주권이 영역성과 결합하여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주권의 다양성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해준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Ong은 예외 공간의 형성을 너무 포스트 발전주의의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발현된 것으로만 설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차이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자본주의 발전 궤적

에 비추어볼 때 예외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Ong이 설명하고자 했던 동아시아의 경제특구의 발전 논리는 보다 넓은 사회-공간적 맥락에서 다채롭게 설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박배균, 2017).

2) 접경지역의 예외적 성격

접경지역은 어떤 점에서 예외적 성격을 갖는 공간일까? 접경지역은 지경학적(geo-economics) 관점에서 국경을 마주한 국가들 간의 교류와 협력이 발생하는 장이기도 하고 지정학적(geo-politics) 관점에서 대결과 반목, 갈등이 발생하는 장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지경학적 관점에서 접경지역은 자본과 노동의 활발한 이동을 위한 예외적인 법률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자본이 잉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접경지역 내의 노동력들을 지속적으로 포섭하면서 배제하는 생명정치학의 논리가 작동하는 예외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지정학적 관점에서 접경지역은 감시 및 보안체계, 국경 정책 등의 차원에서 볼 때 다른 곳과는 차별화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에 예외 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최근 접경지역을 둘러싼 연구들 중에는 생명정치학(biopolitics)을 통해 예외적 성격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많다. 우선, Arnold와 Pickles(2011)는 타이와 미얀마 접경지역에 위치한 메솿 경제특구(Mae Sot Special Economic Zone)를 사례로 한 연구에서 미얀마 출신의 이주 노동력이 타이의 경찰과 국경 수비대, 국영 경비기관, 타이-미얀마 접경지역을 둘러싼 국가 및 초국가 행위자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착취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태로운 노동 체제(regime of precarious labour)'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들은 위태로운 노동 체제를 형성한 제도와 거버넌스 관행은 무엇인지, 이것이 생명정치학의 생산이란 관점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해당 공간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

들 미얀마 이주 노동력을 착취적인 노동관계 속으로 편입시켰는지를 분석하면서 메솿 경제특구를 하나의 '예외 지대(zone of exception)'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Topak(2014)은 그리스-터키 접경지대(borderzone)를 사례로 이주자들에 대한 다양한 감시 메커니즘을 분석하였으며, 장세용(2014)은 미국-멕시코 접경지대를 사례로 미국의 감시와 통제 정책, 멕시코계 불법 이주민의 월경 노력과 죽음, 인종화 전략 등을 법철학자 Agamben의 예외 상태(state of exception)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시민권(또는 주권)이 정치적으로 정의된 공간 위에서 포섭과 배제란 경쟁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볼 때, 구체적으로 접경지역에서의 시민권은 생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신체와 영역성을 갖는 접경지역, 그리고 포섭과 배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정치권력이 서로 관계론적으로,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Barker, 2010: 352). 더 나아가 일정한 범위로 구획된 접경지역에서의 이와 같은 '생명정치의 거버넌스'는 한 나라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예외적이고, 따라서 접경지역의 공간성을 예외성의 철학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3. 위치성의 개념적 확장 공간성에 대한 이해

1) 연구자의 위치성과 장소의 위치성

사회과학에서 위치성(positionality)은 '연구자의 위치성'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Kortelainen and Rannikko, 2015: 63). 위치성은 원래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상대적 위치를 의미하는데, 주체와 대상 간의 상대적 위치가 주체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특히 페미니

스트 지리학에서는 연구자의 젠더,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그 밖의 정체성 등의 사회적 상황(social situatedness)이 대상에 대한 객관적 지식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한편으로 이는 당시 서구 학계가 직면한 ‘재현의 위기(the crisis of representation)’와 그에 따른 자신의 위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추구하는 성찰성(reflexivity)의 강조와도 관련된다(정현주, 2015: 299; Nagar and Geiger, 2007: 267; Rose, 1997). 한편 연구자의 위치성에 따라서 연구 대상인 피험자는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질적 연구에서 면담면 심층 인터뷰를 할 때 면담 대상자는 연구자의 정체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 경우 면담 그 자체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사건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치성은 존재의 맥락 의존적(context-dependent)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Kelly and Olds, 2007: 259).

연구자의 위치성 관점에서 주목을 받았던 위치성은 지리학자 Eric Sheppard에 의해서 장소의 위치성으로 재개념화되었다. Sheppard(2002: 318)는 기존 위치성 논의가 ‘지리적 상황(geographical situatedness)’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위치성 논의에서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주체가 특정 맥락에 놓여 있음을 성찰할 필요가 있듯이 어떤 장소의 발전 가능성과 궤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놓여 있는 특정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Sheppard는 자신이 제안한 위치성이 결국은 지위위치성(geopositionality)이라며, 여기에서는 특정 장소가 특정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른 장소와 관계론적으로 위치되며, 여기에는 장소들 간의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어떤 장소의 가능성은 일차적으로 단순히 로컬의 결단이나 착근적인 관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와의 관계를 통해서 조건화될 수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위치성 개념은 다양한 스케일들 간의 관계에 주

목한다(Sheppard, 2002: 318; Kortelainen and Rannikko, 2015: 63).

Sheppard가 제안한 위치성 개념은 오늘날 세계화가 초래하는 차별적인 지리적 결과를 포착하기에 적합하다. Sheppard(2002: 325-326)는 세계화 시대의 공간성 논의에서 위치성을 강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적 효과를 기대하였다. 첫째, 위치성에 주목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도 공간이 갖는 중요성은 감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공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하고자 한다(Sheppard, 2002: 325). 즉, Sheppard는 위치성 논의를 통해서 Massey의 주장인 “지리는 중요하다!(Geography matters!)”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Sheppard처럼 Massey(2005: 91) 역시 교통과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보다 두 지점 간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있고 상호 연결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동 시간’으로 측정된 ‘거리(distance)’이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확대라는 의미에서의 ‘공간’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같은 취지에서 Massey는 공간이 단지 거리로 환원될 수 없는 다중적인 개념임을 강조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공간을 소멸시키거나 거꾸로 공간이 시간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위치성에 주목함으로써 로컬의 변화 가능성이 장소에 기반을 둔 로컬의 내적 조건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경제체제 내 영역의 위치성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하고자 한다(Sheppard, 2002: 320, 325). 예를 들어, 불균등발전은 단순히 로컬의 조건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장소들의 불균등한 위치성으로 인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내생적 차원의 제도적 구조(endogenous institutional structures)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s) 간의 접합을 강조하면서 지역 발전을 지역 거버넌스 구조의 맥락 속

에서 영역화된 관계망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역동적 결과로 설명하려는 Coe 등(2004)의 시각과 유사하다.

셋째, 위치성에 주목함으로써 세계화를 근대화 담론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Sheppard, 2002: 320, 325-326). Sheppard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만이 가능하다는지, 세계화를 비자본주의 경제 형태로 간주되는 '타자'에 대한 침투, 침략으로 이해한다는지, 단일한 발전 경로만이 가능하다는 관점에 대해 비판적이다(세계화를 강간 스크립트로 간주한 연구로는 Gibson-Graham, 2006을 참조할 것.). 대신 Sheppard(2011: 66)는 목적론적 발전 궤적을 기각하고 관계론적/변증법적 존재론(relational/dialectical ontology)의 입장에서 자본주의 발전은 다양한 발전 궤적과 일상의 삶의 모습들이 아쌍블라주된 공간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넷째, 위치성에 주목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특정 집단의 위치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저항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Sheppard, 2002: 326).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지리학자로서 Sheppard는 연대와 저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Helga Leitner, Kristin M. Sziarto와 함께 '논쟁의 정치학(contentious politics)'을 연구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그는 차별적인 위치성을 갖는 개인과 제도와 더불어 로컬을 뛰어넘는 네트워크(trans-local networks)가 효과적인 연대와 사회운동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연대와 사회운동이 진행되면서 연대와 사회운동이 발판으로 삼고 있는 공간성이 복잡한 방식으로 서로 얽히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산출하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Leitner·Sheppard·Sziarto, 2008: 162, 167).

2) 위치성과 새로운 공간성 탐색

위치성(positionality)이라는 개념이 장소에 적용될 때, 그것이 장소들 간의 상대적 위치(situation)나 관계를 의미한다면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기존 개념들이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두 장소 간의 거리(distance)를 비교하여 가깝고 먼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장소들마다 도달 가능성, 즉 접근성(accessibility)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적 위치인 'site'와 달리 상대적 위치인 'situation'은 한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장소들과의 관계 특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Sheppard(2002: 318)는 이들 개념들이 위치성이 기반을 두고 있는 공간성의 존재론적 입장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거리(distance)와 상대적 입지(relative location)는 유클리드 기하학(Euclidean geometry)이나 이의 변형된 모습을 종종 내포하는데, 여기에서 두 장소들 간의 연결성은 데카르트 좌표계(Cartesian coordinates)의 연속적인 수학 기능으로 대략적으로 평가된다. 접근성(accessibility)과 상대적 위치(situation)는 연결성이나 접근성을 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측정하는데, 접근성은 양적 측정 체계(quantitative measurement system)를 제시하며 접근성과 상대적 위치 모두는 시간에 대해 무관심한 채, 장소의 정적인 공간적 속성으로 간주된다(Sheppard, 2002: 318).”

결론적으로 위치성은 유클리드 기하학이나 데카르트의 절대적 좌표 체계에 기반을 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위치성은 기하학적 질서보다는 위상학적 혼동과 복잡성을 따른다. 뿐만 아니라 공간과 시간을 개념화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관점과는 차별화된다. 여기에서는 위치성이 추동하는 공간성

(spatiality)을 관계론적이고 변증법적인 사회-공간론적 존재론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접경지역 연구와 관련하여 위상학적 존재론이 어떤 의미로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위치성은 관계론적/변증법적인 사회-공간론적 존재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공간론적인 존재론이란 사회와 공간/시간, 그리고 인간 너머의 세계(more-than-human world)³⁾가 상호 구성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사회-공간론적 존재론은 정체성과 정치, 문화 등의 모든 측면들을 구성하는 사회 세계의 경제적, 비경제적 측면들이 상호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Sheppard, 2011: 62). 그리고 사회-공간론적 존재론은 자본주의 공간경제의 행위주체와 영역을 변증법적 관점에서(헤겔식 변증법이 아니라 비목적론적이고 단선적이지 않은 느슨하고 열려 있는 지리적 변증법의 관점에서) 이론화하는 입장이다(지리적 변증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Sheppard, 2008). 이와 같은 사회-공간론적 존재론을 채택하게 되면 어떤 존재의 위치성이든 다양한 가치를 갖는 공간성(multi-valent spatialities of positionality)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Sheppard, 2011: 64).

사회-공간론적 존재론은 행위 주체를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행위 주체로 개념화하기보다 계급이나 젠더, 입지 등에 의해 형성된 경제적 과정에서 형성된 위치성의 관점에서 개념화한다(Sheppard, 2011: 62-63). 이와 관련하여 Plummer와 Sheppard(2006: 622)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경제적 행위 주체는 완전히 합리적이거나 자율적이지 않다. 이들의 관심사와 선호는 이들의 사회공간적 위치(sociospatial position)에 의해 형성된다. 이들의 지식은 완벽하지 않다. 이들은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을 통해 참여한다. 이들의 행동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사회 구조와 문화적 맥락을 이루기도 하지만 사회 구조와 문화적 맥락이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사회-공간론적 존재론이 행위주체를 개념화한 방식은 공간의 변화를 열려 있고, 그래서 우연적이고 다양한 발전 궤적이 나타나도록 이끈다. 발전은 변화하는 연합 및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적으로 위치한 행위주체들의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 가능성들의 아쌍블라주(assemblage of possibilities)로 이해된다(Sheppard, 2011: 66; Sheppard, 2008: 2609). 공간의 특성이 내적으로 안정된 특성에만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흘러드는(continually in flux) 사회공간적 위치성(sociospatial positionality)의 특성으로 인해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기 때문에 균형이나 안정보다 불균형이나 불안정이 보편적이게 된다(Sheppard, 2011: 63). 위치성이 다르면 발전 궤적도 달라진다. 따라서 사회-공간론적 존재론은 비목적론적이고, 다채로운 발전 그림들을 제시해준다.

결코 간과하기 어려운 사회-공간론적 존재론의 함의 중 하나는 이것이 공간과 시간을 통합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공간과 시간을 상호 얽혀 있는 공시공간성(spatiotemporality)으로 이해한다. 공간과 시간을 분리할 수 없고 얽혀 있다는 관점은 뉴턴식 물리학으로부터의 결별을 의미한다(Massey, 1994: 260-263). 뉴턴의 역학에서 공간은 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단순한 배경 정도로 간주되었고, 공간과 시간은 각자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Albert Einstein의 ‘상대성 이론’에서 출발한 현대 물리학은 물체의 운동을 공간과 시간이 통합되어 얽혀 있는 4차원적인 방식으로 설명한다. 지리학이 (적어도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현대 물리학의 성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Sheppard는 공간성에 관한 대담 중에서 지리학이 너무나 자주 시간을 배제한 채 뉴턴 역학의 3차원이 직교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시간을 공간성에 대한 사고 속으로 적절하게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지리학 이론가들에게 중요한 도전으로 남아 있

다고 주장했다(Merriman *et al.*, 2012: 9). Massey (1994: 263)도 사회과학이 다루는 물리적 공간이 물리학에서 다루는 공간 개념과 최소한 일관성 있게 조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간과 시간이 통합된 것으로 상상하는 것은 공간을 화석화된 것, 죽어 있는, 정지한 것으로 재현하지 않고 살아 있고, 움직이며, 생동하는 것으로 재현한다. Massey(2005: 108)는 공간에 관한 탁월한 명저 『공간을 위하여(For Space)』에서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그려진 지도를 제시해놓고 “이것은 공간이 아니다(Ceci n'est pas l'espace).”라고 주장했다. 지도로 재현된 공간의 모습이 공간이 아니라니 처음에는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Massey의 이와 같은 주장은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René Magritte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Ceci n'est pas une pipe.)’를 염두에 두면서 지리학에서 재현이 초래하는 상상력의 빈곤을 지적한 것이다(‘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에 관해서는 Foucault의 비평을 참조할 것. 김현 역, 2010). Massey는 시간만이 생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도 생동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간이란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겨 있는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주체들이 다양한 관계맺음을 통해서 역동적인 모습을 구성하고 있듯이 공간을 그렇게 생동하고 있는 것으로 상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간을 이렇게 상상할 때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도 열린다는 점을 강조한다(Massey, 1994: 249-272).

위치성은 공간에 대한 기하학적 관점이 아니라 위상학적 관점에 토대를 두고 있다. 위상학(topology)은 사물들 간의 위치를 절대적인 거리로 표현하지 않고 점과 선으로 표현된 연결 관계로만 표현한다. 따라서 위상학에서는 사물들 간의 가깝고 먼 정도를 기하학적 차원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차원에서 평가한다(최병두, 2015: 145-147). 예를 들어, Sheppard(2002: 323-324)

는 공간을 건너뛰는 위치성이 기존 지도학적인 이미지는는 파악하기 곤란하다면서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으로 웜홀(wormhole)을 제시하였다.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이 가깝게 연결되었다면, 이는 위치성 차원에서 두 지점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웜홀이 형성된 것으로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웜홀은 세계화 과정의 비유클리드, 비데카르트적 특성을 그려내기 위한 하나의 비유이며 위치성이 가깝게 중첩되어 공간이 접힐 때(folded),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상황을 포착해낸다. 결국 웜홀은 위치성이 지리적 공간을 선택적으로 뺀어나가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며, 세계화의 구조적 효과로 어떻게 세계화 과정이 공간/시간을 재편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Zook and Brunn, 2006: 474-475).

국경을 사이에 두고 형성된 접경지역의 지리는 위상학적 관점에 토대를 둔 위치성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Allen, 2011: 284, 2016: 128). 왜냐하면 국경을 사이에 둔 접경지역은 기하학적으로는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지만 국경이 갖는 의미, 국가 간 정치·외교적 관계 등에 따라서 차별적인 관계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약 국경의 기능이 매우 차단적이라면 실제로는 매우 가깝게 위치한 접경지역이라 할지라도 위상학적으로 볼 때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4. 위치성 전환과 복중 접경지역의 예외적 성격

1) 접경지역의 위치성 전환

위치성 개념을 적용하여 접경지역을 연구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핀란드의 지리학자인 Jarmo

Kortelainen과 Pertti Rannikko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핀란드-러시아 접경지대의 임산자원 커뮤니티를 사례로 국경의 갑작스러운 차단과 개방이 지역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다. Kortelainen와 Rannikko(2015)는 임산자원 커뮤니티의 변화하는 위치성(changing positionalities)을 강조하면서, Sheppard(2002)가 제안한 위치성을 '위치성 전환(positionality switch)'으로 재개념화하여 핀란드와 러시아 간의 관계 변화에 따른 국경의 갑작스런 폐쇄와 임산자원 커뮤니티의 상대적 위치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다.⁴⁾

Kortelainen와 Rannikko(2015)가 위치성 전환을 제시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Kortelainen and Rannikko(2015: 61-62)는 핀란드-러시아 접경지대 임산자원 커뮤니티의 변화를 연구하면서, 접경지역과 같은 주변부 지역에 대한 연구는 중심부 지역을 사례로 제안된 이론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면서 주변부/로컬 모델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주변부/로컬 모델이란 임산자원 커뮤니티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이론으로 자원 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행태를 산업주의(industrialism), 조절주의(regulationism), 환경주의(environmentalism), 토착주의(aboriginalism)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산업주의는 임산자원의 개발을 독려하는 기업 자본이나 사적 자본의 역할을 강조하며, 조절주의는 임산자원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나 제도에 다른 영향을 강조한다. 그리고 환경주의는 환경 비정부기관 등의 역할을 강조하며 토착주의는 지역 내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강조한다. 그런데 Kortelainen and Rannikko(2015: 59-60)는 이와 같은 주변부/로컬 모델만으로는 지역의 발전과 변화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보다 넓은 지역 변화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이들이 제시한 개념들이 바로 위치성이다. 주변부/로컬 모델과 위치성 간의

결합은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치우친 주변부/로컬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안과 밖이 서로 교차하는 관점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Kortelainen and Rannikko는 주변부/로컬 모델과 위치성 개념을 결합하여 접경지역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행위주체들 간의 관계 변화를 공시간적으로 특수한 맥락에 의존하여 설명하였다.

Kortelainen와 Rannikko(2015)의 연구가 위치성 전환이란 개념을 통해서 국경의 갑작스러운 폐쇄에 따른 접경지역 변화를 명확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지만, 국경의 개방과 폐쇄는 단지 특정 시기의 제도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선형적으로 가정되고 있을 뿐 국경의 의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힘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영향이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가 임업 커뮤니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시된 산업주의, 조절주의, 환경주의, 토착주의라는 일반적인 접경지역 연구에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접경지역의 정체성을 지경학과 지정학의 역동적인 관계 변화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한 Pickles와 Smith 등(2016)에 연구에 주목한다. Pickles와 Smith 등(2016: 162-181)은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를 사례로 의류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갖는 공간적 의미를 분석하면서, 경제적 영역성과 정치-법률적 영역성(economic and political-juridical territorialities)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서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생산 관행을 파악하는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경제적 영역성과 정치-법률적 영역성 간의 역동적인 관계, 즉 지경학(geo-economics)과 지정학(geo-politics) 간의 역동적인 관계가 국경의 개방과 폐쇄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경학-지정학 관계에 주목하는 분석틀을 Kortelainen와 Rannikko(2015)의 위치성 전환 분석에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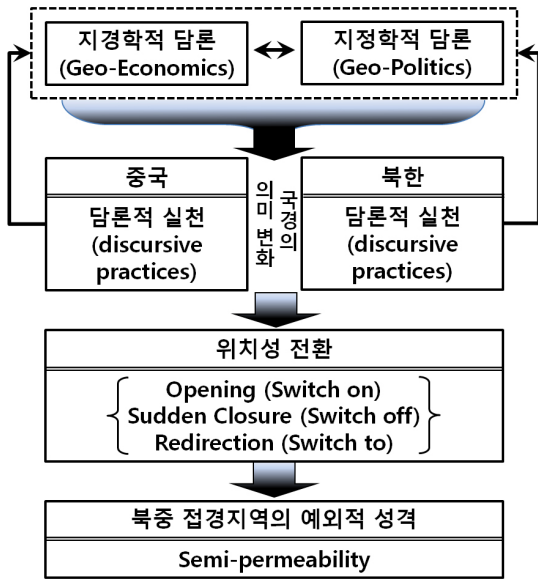


그림 1. 위치성 전환과 북중 접경지역의 예외적 성격

학적-지정학적 담론 형성에 영향을 준다(지상현, 콜린 플린트, 2009; 이승욱, 2016a).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가 접경지역의 위치성 전환을 가져오며(스위치 켜기, 스위치 끄기, 스위치 바꾸기), 궁극적으로 접경지역의 예외적 성격을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2) 위치성 전환에 따른 북중 접경지역의 예외적 성격

국제 사회를 향한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는 북중 접경지역의 분위기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북중 접경지역에는 북중 간 교역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대북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UN 대북 제재 결의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안보 위기는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지경학적 교류와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 절에서는 이와 같은 지경학적-지정학적 관계의 변화가 북중 접경지역에 놓여 있는 국경의 의미 변화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접경지역의 예외적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이를 '위치성의 전환'으로 포착하고자 한다.

표 1은 북중 접경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경학적·지정학적 담론을 실천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북중 접경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경학적 담론은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반면 지정학적 담론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 함께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 교류와 협력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북중 간 경제협력과 교류

나는 공백을 채우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접경지역의 위치성 전환은 접경지역을 둘러싼 지경학과 지정학 간의 역동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지경학의 논리는 국경을 개방하여 접경지역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되며, 지정학의 논리는 군사적 충돌이나 안보상의 불안으로부터 영토적 통합성을 유지하거나 국경의 보안을 개선하려는 움직임과 관련된다. 지정학의 논리는 지경학의 논리와 다르게 국경을 차단시킨다(S.-O. Lee, 2014: 176).

그림 1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한 분석 틀이다. 비판지정학의 입장에서 지경학과 지정학을 하나의 담론으로 이해했다. 지경학적 담론과 지정학적 담론 간의 역동적인 관계 변화는 국경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이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담론적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러한 담론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담론적 실천에 참여한 주체들은 다시 지경

표 1. 북중 접경지역의 지경학적-지정학적 담론과 실천

| 담론(discourses) 실천(practices) | 경쟁하는 담론들 | |
|---|--|--|
| | 지경학적 담론(geo-economics discourse) | 지정학적 담론(geo-politics discourse) |
| 북중 간 경제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3성의 경제 발전 • 북중 간 분업을 통한 상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체제 안정과 보장을 통한 원중국으로의 역할 유지(status quo) |
| 북한 노동력의 활용 - 대북 위탁가공 네트워크 - 북한 노동력의 해외 파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 기업들의 이윤 창출 • 외화 벌이를 통한 자본 축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의 통치자금 조성 • 핵 및 미사일 개발 자금 조성 및 활용 • 자본주의식 관행의 습득을 통한 상호 이해 추구 |
| 북한의 무력 도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중 간 경제 교류 단절 위협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사회에 대한 북한의 교섭력 강화 • 핵-경제 병진노선 •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분위기 조성 |
| 대북 제재 결의안 - UN 대북 제재 결의안 - 5·24 대북 제재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중 간 교역 금지 품목 증가 • 북중 간 교류협력 차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 • 비공식적/암묵적 네트워크 의존도 심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 포기 •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 증가 • 대북 제재에 있어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 강조 |

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표 1은 동일한 실천이라도 지경학적·지정학적 담론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한다.

본 논문은 북중 접경지역을 지경학적, 지정학적 담론 속에서 형성된 다양한 시각들, 상상력들이 다양한 형태로 제출되고 경쟁하는 장으로 간주한다(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볼 것. 이승욱, 2016a). 따라서 최근 북중 접경지역을 둘러싼 시각을 크게 (1) 남북 간 대리 소통의 공간과 단절의 공간, (2) 북중 간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정을 추구하는 공간, (3) 제재와 압박의 공간으로 정리하고 이들 시각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지리를 더욱 복잡하고 중층 결정된 것으로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첫째, 남북 간 대리 소통의 공간과 단절의 공간으로서 북중 접경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는 북중 접경지역을 통한 남북 간 교역이다. 남북 간 경제교류와 협력 사업은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섬유나 봉제 제품에 대한 대북 위탁가공

교역(OPT; outward processing trade)이 각광을 받았다(강정모, 1995). 북중 접경지역 내 한국 업체들은 대북 위탁가공 교역을 통해서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다. 한국 업체들의 대북 위탁가공 교역은 지경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위탁가공에 참여한 북한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식 관행을 전파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지정학적 안정을 이뤄낼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인 5·24 조치가 발표되면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차단되었고, 급기야는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나라 정부가 같은 해 2월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시킴으로써 남북 간 경제교류와 협력은 모두 공식적으로 단절되었다. 지경학에 대한 지정학적 담론이 우세해지면서 북중 접경지역을 단절의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둘째, 북중 접경지역은 북중 간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정을 추구하고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처음부터 중국은 북한에 대해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혈맹(blood brothers)’ 관계를 강조하거나 북한을 미 군사력에 대응하는 완충지대로 간주해왔다. 북한을 이와 같이 지정학적 측면에서 강조해온 중국의 관점은 2000년 이후 지정학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새로운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S.-H. Yoon and S.-O. Lee, 2013; S.-O. Lee, 2014: 179).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대 초반에 진행된 북한의 새로운 특구 전략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때 북한은 남한과 함께 금강산 관광 특구와 개성 공단 개발을 추진했으며,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중국과 함께 신의주를 새로운 특구로 지정·육성하였다(이승욱, 2016b). 한편 2000년대 초반 중국은 북한과의 새로운 경제 협력 원칙을 ‘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운영, 호혜공영(政府引导, 企业为主, 市场运作, 互利共赢)’으로 표현하였다(S.-O. Lee, 2014: 179; 이승욱, 2016b: 124). 이처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토적 전략의 초점이 기존 지정학에서 지정학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중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안보 위협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S.-O. Lee, 2014: 182). 이 사례는 지정학-지정학 간의 관계 변화에 따라서 국경선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아니라 북중 간 경제 협력의 방향성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스위치 바꾸기(switch to)’ 차원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북중 접경지역은 제재와 압박의 공간으로 간주된다. 2017년 9월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이번 핵실험은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후 여섯 번째에 해당한다. 북한은 핵실험 외에도 올해에만 여러 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함으로써 한반

도의 지정학적 불안を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면서 그에 따른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강도도 점차 커져왔다. 지난 2016년 9월에 있었던 다섯 번째 핵실험에 대해서 국제 사회는 지금까지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이 내놓았던 대북 제재 결의안 중에서 가장 제재 강도가 높은 제2321호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대응해왔다(권영경, 2017). 그런데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하게 되면서 기존 UN 대북 제재 결의안 제2321호보다 더 강력해진 제재 결의안을 마련하여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사례는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하는 지정학적 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강한 제재와 압박은 북중 접경지역의 교역을 차단시키는 ‘스위치 끄기(switch off)’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와 같은 제재와 압박은 특히 중국의 참여 없이는 의도했던 효과를 얻기 힘들다. 중국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 위기를 고조시킨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중국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면 이 사례는 ‘스위치 바꾸기(switch to)’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사회를 향한 북한의 무력 도발과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은 한반도를 지정학적 안보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시(戰時)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예외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한반도는 예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까지 위치성 전환의 틀로 포착한 북중 접경지역의 예외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북중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 불안이라는 ‘예외 상태’가 상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지정학적 논리가 작동하면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예외적인 성격을 창출한 것으로 이해된다.

5. 결론

본 논문은 지금까지 위치성 전환이란 개념을 통해서 접경지역의 예외 공간적 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법철학자 Agamben이 제시한 ‘예외 상태’와 ‘호모 사케르(homo sacer),’ 그리고 인류학자 Ong이 제시한 ‘예외 공간,’ ‘예외로서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예외’ 등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접경지역의 예외적 성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접경지역의 예외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로 ‘위치성(positionality)’을 제시하고 위치성의 개념적 확장 과정과 위치성 논의가 갖는 공간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위치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북중 접경지역을 사례로 북중 간 경제 협력과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공존하고 있는 ‘조절의 공간’의 차원에서 북중 접경지역의 위치성 전환과 예외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이 강조하는 예외 상태 또는 예외 공간의 속성은 예외 이전의 정상적인 법질서 상태와 비교함으로써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성’ 차원의 독해가 필요하다. 특히, 본 논문은 위치성이 갖는 관계론적이고 변증법적인 사회-공간론적 존재론의 입장을 강조하였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공간론적 존재론은 공간의 변화를 열려 있고, 우연적인 것으로 그려내며 따라서 균형보다는 불균형이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사회-공간론적 존재론은 공간과 시간을 통합된 것으로 이해하며 따라서 공간을 시간과 마찬가지로 생동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따라서 위치성은 유클리드 기하학과 데카르트 좌표계로 대표되는 기하학적 관점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이 서로 통합되어 얽혀 있는 위상학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접경지역의 예외적 특성은 관계론적이기 때문에 위상학

적 관점에 기반을 둔 위치성을 통해서 접경지역의 예외적 특성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접경지역은 지경학적(geo-economics) 관점에서 국경을 마주한 국가들 간의 교류와 협력이 발생하는 장이기도 하고 지정학적(geo-politics) 관점에서 대결과 반목, 갈등이 발생하는 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경지역은 자본과 노동의 활발한 이동을 위한 예외적인 법률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지속적인 잉여가치 창출을 위해 접경지역 내 노동력을 포섭하면서 배제하는 생명정치학의 논리가 작동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접경지역은 감시 및 보안체계, 차단적인 국경정책이 작동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경지역은 예외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경지역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위치성 전환에 따른 북중 접경지역의 예외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북중 접경지역을 지경학-지정학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시각들과 상상력들이 제출되고 경쟁하는 장으로 간주한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1) 남북 간 대리 소통의 공간과 단절의 공간, (2) 북중 간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정을 추구하는 공간, (3) 제재와 압박이 실현되는 공간을 제시하고 이들 시각들을 지경학-지정학의 관계를 통해서 파악하였다. 북중 접경지역은 북한의 무력 도발과 그에 대응하는 강한 제재와 압박이라는 지정학적 긴장 상태가 상존하는 지역으로 Agamben이 비판하고자 했던 ‘예외 상태’가 상례화되고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경학-지정학 간의 역동적 관계가 작동하면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예외적인 성격을 창출한 것으로 이해된다.

주

- 1) 고대 로마법에 따르면 호모 사케르란 ‘성스러운 인간 (sacred man)’을 뜻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호모 사케르가 문자 그대로 성스러운 인간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에는 불결한 사람을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사실 호모 사케르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인민에게 고발당한 자로서 희생제물이 될 수 없고,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해도 그 사람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존재라고 한다. Agamben은 호모 사케르가 희생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호모 사케르가 종교질서로부터 배제된 자, 추방된 자라는 의미이며, 호모 사케르를 죽여도 죽인 사람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호모 사케르가 법질서로부터 배제된 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박진우 역, 2008; 김태환, 2004: 1284-1287).
- 2) 주권에 관한 Carl Schmitt의 유명한 정식 “주권자란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Souverän ist, wer über den Ausnahmezustand entscheidet.*)”의 독일어 원문에서 전치사에 해당하는 *über*의 이중적인 의미로 인해 이 말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주권자란 예외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자이다(홍철기, 2006: 197).” 따라서 주권자는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외 상태를 선포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질서 안에 위치한 존재이지만, 예외 상태 하에서는 조속한 기존 법질서로의 회복을 위해서 주권자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질서 밖에 위치한 존재이기도 하다. Agamben은 법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법의 안과 밖을 두루 들여다봄으로써 법의 한계(threshold)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주권의 본질 규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주권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의 안과 밖을 들여다봄으로써 주권의 한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Agamben은 법의 빈틈, 부재하는 공간인 예외 상태에 주목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 3) 최근 자연과 인간(문화)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비판하면서 자연세계와 인간세계 간의 상호 얽힘을 강조하는 학문적 경향이 사회과학 내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를 지리학에서는 인간 너머의 지리학(more-than-human geographies)이라고 부른다. 인간 너머의 지리학은 비인간 행위력(non-human agency)에 대해 열려 있으며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 상호 연결되어 나타나는 물질적(material)이고 감응적인(affective) 차원을 강조한다. 인간 너머의 지리학은 인간 존재를 하나의 혼성체(hybrid entities)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계의 다양한 대상물들 간의 연결을 추적해보도록 하며 새로운 윤리적 쟁점과 정치의 문제를 제기한다(Greenhough, 2014; 최명애, 2016: 614).

4) 본 논문에서 ‘positionality switch’ 또는 ‘switching positionality’를 ‘위치성 전환’으로 옮겼지만, 국경의 갑작스러운 단절(switch off)과 개방(switch on)에 따른 지역 변화를 고려한다면 ‘위치성 전환’보다는 ‘위치성 개폐(開閉)’나 ‘위치성 단속(斷續)’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는 논의 상 ‘switch’와 ‘shift’의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positionality switch’ 또는 ‘switching positionality’를 ‘위치성 전환’으로 옮겼다. Kortelainen와 Rannikko(2015)와 달리 Sheppard(2013)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한적한 자원 변방지역인 필바라(Pilbara)가 글로벌 자본주의로 편입되면서 변명을 누리게 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위치성 전환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때는 ‘positionality shift’란 표현을 사용했다.

참고문헌

권영경, 2017, “김정은시대 북중 교역관계의 특징 분석과 유엔 2270호 제재 이후 전망,” 통일문제연구 29(1), pp.1-35.

강정모, 1995, “북한의 위탁가공 교역 현황과 전망,” ITBI Review 1(2), pp.31-52.

김미경, 2015, “세계화의 위기와 교차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로컬리티 인문학 13, pp.89-120.

김부현·이승철, 2015, “후기 사회주의 체제전환 지리학의 답론: 국가 사회주의 붕괴 이후 10년과 20년,” 국토지리학회지 49(4), pp.517-534.

김은혜·박배균, 2016, “2000년대 이후, 일본의 국가 스케일 재편과 특구 전략,” 공간과 사회 26(2), pp.10-43.

김태환, 2004, “예외성의 철학: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통치권력과 별거승이 삶,” 문학과 사회 17(3), pp.1281-1297.

김항 역, 2009, 예외 상태, 새물결. (= Agamben, G., 2003, *Stato di Eccezione*, Bollati Boringhieri editore.)

김현 역, 2010,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고려대학교출판부. (= Foucault, M., 1973, *Ceci n'est pas une Pipe*, Editions Fata Morgana.)

박배균, 2017, “동아시아에서 국가의 영토성과 예외적 공간: 동아시아 특구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지역

- 지리학회지 23(2), pp.288-310.
- 박진우 역, 2008,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 Agamben, G., 1995, *Il Potere Sovrano e la Nuda Vita*, Giulio Einaudi editore.)
- 박철현, 2016, “중국 발전모델 전환형 특구의 형성: 충칭 량장신구(兩江新區)에 대한 다중스케일 분석,” 공간과 사회 26(2), pp.80-131.
- 이승욱, 2016a, “개성공단의 지정학: 예외공간, 보편공간 또는 인질공간?,” 공간과 사회 26(2), pp.132-163.
- 이승욱, 2016b,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특구전략: 영역화, 분권화, 그리고 중국식 개혁개방?,”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1), pp.122-142.
- 이승욱·박배균, 2016, “동아시아 예외공간, 경제특구의 변화와 모순, 편집의 글,” 공간과 사회 26(2), pp.5-9.
- 이옥희, 2011, 북·중 접경지역: 전환기 북·중 접경지역의 도시 네트워크, 푸른길.
- 장세용, 2014,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와 밀입국자: 생명정치 개념과 연관시켜,” 역사와 경제 91, pp.313-351.
- 정인모·배정희 역, 2010, 공간, 장소, 경계: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구소 로컬리티 번역총서, 에코리브르. (= Schroer, M., 2006, *Räume, Orte, Grenzen: Auf dem Weg zu einer Soziologie des Raums*,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 정현주, 2015, “다문화경계인으로서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경계시대’, 억압의 ‘교차성’, ‘변위’ 개념에 대한 검토 및 적용,” 대한지리학회지 50(3), pp.289-303.
- 조만성 역, 2011,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엘피. (= Huddart, D., 2006, *Homi K. Bhabha*, Routledge *Critical Thinkers*, Routledge.)
- 조성찬, 2016,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의 비판적 검토,” 공간과 사회 26(2), pp.44-79.
- 조성훈 역, 2011, 가상계: 운동, 정동, 감각의 아쌍블라주, 갈무리. (= Massumi, B., 2002, *Parables for the Virtual: Movement, Affect, Sensation*, Duke University Press.)
- 지상현, 콜린 플린트, 2009, “지정학의 재발견과 비판적 재구성: 비판지정학,” 공간과 사회 31, pp.160-199.
- 최명애, 2016, “새로운 정치생태학을 위한 비인간지리학의 인간-자연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51(5), pp.613-632. [영문판]
- 최병두, 2015,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위상학적 공간 개념,” 공간과 사회 25(3), pp.125-172.
- 홍철기, 2006, “아감벤의 예외상태 비판: 호모 사케르와 예외 상태,” 오늘의 문예비평 3월호, pp.195-216.
- Agnew, J., 2008, “Borders on the Mind: Re-Framing Border Thinking,” *Ethics and Global Politics* 1(4), pp.175-191.
- Allen, J., 2011, “Topological Twists: Power’s Shifting Geographies,”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1(3), pp.283-298.
- Allen, J., 2016, *Topologies of Power: Beyond Territory and Networks*, Routledge.
- Arnold, D. and Pickles, J., 2011, “Global Work, Surplus Labor, and the Precarious Economies of the Border,” *Antipode* 43(5), pp.1598-1624.
- Arnold, D., 2012, “Spatial Practices and Border SEZs in Mekong Southeast Asia,” *Geography Compass* 6(12), pp.740-751.
- Barker, K., 2010, “Biosecure Citizenship: Politicising Symbiotic Associations and the Construction of Biological Threat,”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5, pp.350-363.
- Coe, N., Hess, M., Yeung, H. W.-C., Dicken, P., and Henderson, J., 2004, “Globalizing Regional Development: A Global Production Networks Perspectiv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 29, pp.468-484.
- Fluri, 2012, “Capitalizing on Bare Life: Sovereignty, Exception, and Gender Politics,” *Antipode* 44(1), pp.31-50.
- Gibson-Graham, J. K., 2006, *The End of Capitalism(As We Knew It): A Feminist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reenhough, Beth, 2014, More-than-human Geographies, in Lee, R. *et al.*, (eds.), *The Sage Handbook of Human Geography*, Sage Publication, Ch. 5. (pp.94-119).
- Kelly, P. F. and Olds, K., 2007, Researching Transnational Networks, in Tickell, A., Sheppard, E., Peck, J., Barnes, T., (eds.), *Politics and Practice in Economic Geography*, Sage Publications, Ch. 21.
- Kortelainen, J. and Rannikko, P., 2015, "Positionality Switch: Remapping Resource Communities in Russian Borderlands," *Economic Geography* 91(1), pp.59-82.
- Lee S.-O., 2014, "China's New Territorial Strategies towards North Korea: Security, Development, and Inter-scalar Politics,"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55(2), pp.175-200.
- Lee, S.-O., Jan, N. and Wainwright, J., 2014, "Agamben, Postcoloniality, and Sovereignty in South Korea," *Antipode* 46(3), pp. 650-668.
- Leitner, H., Sheppard, E., and Sziarto, K. M., 2008, "The Spatialities of Contentious Politic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3, pp.157-172.
- Martinez, O., 1994, The Dynamics of Border Interaction: New Approaches to Border Analysis, in Schofield, C., (ed.), *World Boundaries Vol.1: Global Boundaries*, Routledge.
- 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assey, D., 2005, *For Space*, Sage Publications.
- Merriman, P., Jones, M., Olsson, G., Sheppard, E., Thrift, N. and Tuan, Y.-F., 2012, "Space and Spatiality in Theory,"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2(1), pp.3-22.
- Minca, C., 2007, "Agamben's Geographies of Modernity," *Political Geography* 26, pp.78-97.
- Nagar, R. and Geiger, S., 2007, Reflexivity and Positionality in Feminist Fieldwork Revisited, in Tickell, A., Sheppard, E., Peck, J., Barnes, T., (eds.), *Politics and Practice in Economic Geography*, Sage Publications, Ch. 22.
- Newman, D. and Paasi, A., 1998, "Fences and Neighbours in the Postmodern World: Boundary Narratives in Politic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2(2), pp.186-207.
- Ong, A., 2006, *Neoliberalism as Exception: Mutations in Citizenship and Sovereignty*, Duke University Press.
- Paasi, A., 2012, Commentary: "Border Studies Reanimated, Going Beyond the Territorial/Relational Divide," *Environment and Planning A*, pp.2303-2309.
- Park, B.-G., 2005, "Spatially Selective Liberalization and Graduated Sovereignty: Politics of Neo-liberalism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South Korea," *Political Geography* 24, pp.850-873.
- Perkmann, M. and Sum, N.-L., 2002, Globalization, Regionalization and Cross-Border Regions: Scales, Discourses and Governance in Perkmann, M. and Sum, N.-L., (eds.), *Globalization, Regionalization and Cross-Border Regions*, Palgrave Macmillan Ltd.
- Pickles, J. and Smith, A. with Begg, R., Buček, M. Roukova, P. and Pástor, R., 2016, *Articulations of Capital: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Regional Transformations*, 1st ed., UK: John Wiley & Sons Ltd.
- Plummer, P. and Sheppard, E., 2006, "Geography Matters: Agency, Structures and Dynamics at the Intersection of Economics and Geograph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6, pp.619-637.
- Pratt, G., 2005, "Abandoned Women and Spaces of the Exception, The 2005 AAG Antipode Lecture," *Antipode* 37(5), pp.1052-1078.
- Ramadan, A., 2013, "Spatialising the Refugee Camp,"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 38, pp.65-77.
- Rose, G., 1997, "Situating Knowledges: Positionality, Reflexivities and Other Tactic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1(3), pp.305-320.
- Schinkel, W. and Berg, M. v. d., 2011, "City of Exception: The Dutch Revanchist City and the Urban Homo Sacer," *Antipode* 43(5), pp.1911-1938.
- Sheppard, E., 2002, "The Spaces and Times of Globalization: Place, Scale, Networks, and Positionality,"

- Economic Geography* 78(3), pp.307-330.
- Sheppard, E., 2008, "Geographic Dialectics?,"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 pp.2603-2612.
- Sheppard, E., 2011, "Geography, Nature, and the Question of Development,"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1(1), pp.46-75.
- Sheppard, E., 2013, "Thinking through the Pilbara," *Australian Geographer* 44(3), pp. 265-282.
- Sidaway, J., 2007, "Spaces of Postdevelopmen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1(3), pp.345-361.
- Topak, Ö. E., 2014, "The Biopolitical Border in Practice: Surveillance and Death at the Greece-Turkey Borderzon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pp.815-833.
- Yoon, S.-H. and Lee, S.-O., 2013, "From Old Comrades to New Partnerships: Dynamic Development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e Geographical Journal* 179(1), pp.19-31.
- Zook, M. A. and Brunn, S., 2006, "From Podes to Antipodes: Positionalities and Global Airline Geographies," *Annals of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6(3), pp.471-490.
- 교신: 이승철,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화: 02-2260-3402, 팩스: 02-2285-3409, 이메일: leesc@dongguk.edu
- Correspondence: Sung-Cheol Le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ongguk University(Seoul Campus), 30, Phildong-ro 1-gil, Jung-gu, Seoul, Korea, Tel: 82-2-2260-3402, Fax: 82-2-2285-3409, E-mail: leesc@dongguk.edu
- 최초투고일 2017년 9월 8일
수 정 일 2017년 9월 20일
최종접수일 2017년 9월 25일